

광주극장·무각사 예술을 품다



광주극장

#. 주말이면 도심에서 벗어나는 시민들이 많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잠시나마 마음의 안정을 얻어갈 '여유로운 공간'을 찾기 위해서다. 광주시 상무지구 여의산에 자리잡은 무각사는 그런 의미에서 특별하고 소중한 공간이다.

녹색 공간에 자리잡은 데다, 사찰 주변으로 산책로도 연결돼 도심 속에서도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

#. 광주극장은 지역 내 유일한 향토극장으로, 77년의 역사적 이야기들이 빽빽한 공간이다. 관객을 무척게 빨아들이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기세에도 예술전용 단관극장으로 자리매김을 확실하면서 두터운 마니아층까지 형성했다.

광주극장과 무각사 등 두 공간이 시민들의 소중한 문화 쉼터로 한발짝 더 다가선다. 광주비엔날레 기간 국내외 유명 작가들이 지역 정체성이 담긴 두 장소를 활용한 작품을 만들어 전시하기로 하면서 지역 문화 충전지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됐기 때문이다.

19일 광주비엔날레재단에 따르면 제 9회 광주비엔날레(9월 7일~11월 11일) 기간 무각사와 광주극장에서 작품을 제작, 전시하는 국내외 작가는 13명에 달한다.

무각사의 경우 독일 출신 볼프강 라이프씨가 꽃가루와 쌀을 소재로 삶을 성찰하고 예술적 치유를 주제로 한 'unlimited Ocean'이라는 작품을 만들어 전시한다. 김주연 작가는 사찰에 3의 소금을 쌓아놓고 오래된 의자를 배치해 관람객들이 맨발로 앉아 소금을 밟아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기억지우기 III'를 제작한다.

두 작품 모두 자신을 돌아보는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시민을 위한 사찰음식·다도·요가 등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면서 명상의 공간으로 사용된 무각사의 성격을 반영한 게 특징이다.

이외 뉴질랜드 출신의 데인 미첼은 지

역 무속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느낌을 반영한 별자리 지도를 만들어 내놓게 되며 우순욱 작가도 명상과 동양철학의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는 영상·설치 작품을 제작하기로 했다.

광주극장에도 비엔날레 기간 스웨덴 출신 작가 마그누스 뱃토스, 싱가포르 작

지않은 공간들, 그렇다고 부수거나 없애 버릴 수도 없는 공간들 중 하나로 광주극장을 선택해 사라져가는 공간의 기억을 끄집어내기 위한 작업을 구상하고 있다.

아브라함 크루즈비에가스의 경우 광주극장 사택에서 3주간 직접 머무르며 도시 곳곳에서 발견한 재료들을 활용한 작품을 설치, 예술과 일상이 결합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스웨덴 작가 마그누스 뱃토스는 22년 짜리 비디오 퍼포먼스 작품 '바이오그래피(Biografi)'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한국 무성영화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변사'를 다루는가 하면, 오프닝 퍼포먼스도 구상중이다.

프랑스 출신 크리스 마커, 미국 작가 알란 세플라와 노엘버치는 각각 '레벨 파이브(104분)', '잊혀진 공간(126분)'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어 관객들에게 선 보인다. 버티칼 서브마린은 한때 광주극장에 있었던 카페 공간을 활용한 설치작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광주비엔날레 기간 작가 13명 전시관 활용

명상·역사 현장 반영...영상·설치작 등 다양

비엔날레 알리고 문화쉼터로 한걸음 가까이

버티칼 서브마린, 멕시코 출신 아브라함 크루즈비에가스, 중국계 미국 작가 우창 등의 작품이 전시된다.

광주극장의 경우 향토극장이자 단관극장의 특수성에 지역의 오랜 역사적 이야기까지 빼곡히 담겨있는데다, 도심 공동화 현상과도 연결지어지면서 전시 기획 과정에서부터 공동 감독들에게 눈도장이 찍혔던 매력적 장소다.

국내 대표적 설치미술가 서도호씨는 지역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쓰

장소가 흩어지면서 전시 효과가 반감될 우려에도 불구하고, 두 장소가 비엔날레 전시관으로 활용된다는 김선정 공동책임감독의 의지도 한몫을 했다. 김 감독은 "지역의 역사성을 담은 공간을 전시 장소로 활용해보고 싶은데다, 광주를 찾는 외국인들이 반나절만 전시를 둘러보고 떠나가는 게 아닌, 광주라는 도시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고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고 했다.

/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



무각사



'라 카리반 파스'



'발칸 비트 박스'

즐거라... 느껴라... 세계 음악의 자유정신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9월 7~8일 전남대...전 공연 무료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 콘서트로 자리잡은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이 올해는 9월 7일~8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 진행되는 모든 공연은 무료로 관객들을 만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주최하고 (재)아시아문화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첫째부터 페스티벌을 이끌어온 인제진(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예술감독)씨가 예술감독으로 참여, 라인업을 확정했다.

뛰어난 피아니스트이자 재즈 작곡가인 파나마의 다닐로 페레즈는 한국-파나마 수교 50주년을 기념, 7인조 밴드와 함께 공연에 나선다.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유럽 최고 라틴재즈밴드 누에바 만테카, 지중해와 발칸 전통뮤직을 토대로 자메이칸 락, 힙합과 댄스를 비트를 가미한 '발칸 비트 박스', 루마니아와 폴란드 출신 음악인들로 구성된 집시의 자

유정신을 보여줄 '라 카리반 파스' 등도 관객들을 만난다. 아코디언, 첼로, 기타로 구성된 일본 밴드 '자하 토르테' 역시 기대된다.

국내 출연진들도 눈에 띈다. 재즈 아티스트 임인건을 중심으로 구성된 '아트만', '사랑가', '폼바' 등을 재해석한 음악으로 폴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룹 엑스(AUX), 우리 민요의 선율과 사물놀이의 신명을 결합한 음악을 들려주는 '이스터노크', 3명의 거문고 주자와 1명의 가야금 연주자로 구성된 '거문고 팩토리' 등이 무대에 선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황혼기 사랑과 우정... 그 따뜻한 시선

예인방 '언덕을 넘어서' 20~21일 나주문예회관

'볼 줌 깨주세요'의 작가 이만희의 희곡들은 세상을 향한 묵직한 이야기와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어우러져 있다.

나주에서 활동하는 극단 '예인방'(대표 김진호)이 무대에 올리는 '언덕을 넘어서'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20~21일 오후 4시~7시 나주문예회관.

'언덕을 넘어서'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들의 이야기로 칠십을 바라보는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주인공이다.

부자면서도 고물상을 운영하며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구두쇠 완애, 그런 완애에게 얽혀 살면서도 돈만 생기면 오라실로 달려가는 자롱, 남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지금도 보험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다혜. 어느 날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자롱의 간이나마 알고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고 했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반가운 얼굴이 눈에 띈다. 드라마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낯익은 박종관씨다. 지난해 나주로 이주해 예인방의 수석 부이장을 맡고 있는 박씨는 MBC 탤런트 공채 5기로 40여 년 동안 드라마 '주몽', '용의 눈물', '허준' 등과 연극 '산불', '노블담의 꾀추' 등에서 개성있는 연기

를 선보였다. 그밖에 박규상씨가 자롱 역으로, 은희씨가 다혜역으로 출연한다. 연출은 송수영씨다.

2012년 공연장 상주단체로 선정된 극단 예인방은 '김치', '무어별', '친정엄마', '마요네즈' 등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문의 010-2087-6146 /김미은기자 mekim@

전남대, 예술의전당서 개교 60주년 음악회

전남대학교가 오는 24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교 60주년 기념음악회를 개최한다.

음악학과 재학생 및 동문 300명으로 구성된 관현악단과 합창단은 이날 개교 60주년의 박찬 감독과 환희를 공유할 수 있는 작품

들을 선보인다.

대학생 오케스트라가 브람스의 '대학축전 서곡'을 통해 축제적 분위기와 전통적이면서도 학구적인 작품으로 음악적 만족감을 선사한다. 또 음악학과 재학생과 동문으로 구성된 200명에 달하는 합창단이 바그너의

오페라 타호이저 중 '그랜드 마차'와 희곡과 성공의 송고한 메시지를 전파할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 등을 무대에 올린다.

이와 함께 음악계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휘자 박지영, 소프라노 이경은·민숙연, 메조 소프라노 신은정, 테너 이상화·정평수, 바리톤 조규철, 첼리스트 박문경 등 동문 8명의 협연무대를 통해 화려한 협주곡과 오페라도 맛볼 수 있다. 공연문의 062-530-3030, 0390.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氣의고장 영암 우수농특산물

청정지역 황토에서 충분한 일조량과 맥반석 물로 재배된 영암농특산물은 친환경농특산물로 타지역 농특산물에 비해 품질과 맛이 월등합니다.



달마지선물세트



장류세트



건나물



빨간양파즙



달마지 쌀골드



영암 한우



무화과 잼/무화과



단감/대동감



영암 배



호박고구마/밤고구마



구입문의 www.gichandle.co.kr 또는 "기찬들" 영암군친환경농특산물판매센터 Tel. 061)473-2130, 470-2846, 2809

결제계좌 | (농협) 652-01-006318 (영암군친환경농특산물판매센터) 택배발송 | 50,000원 이상 구입시 택배비 무료